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한성숙 수녀

말기암환자 간호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Ethical Issues in Nursing Care at the End of Life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권리에 대한 존중은 조직화된 간호전문직이 그 구성원들에게 대상자를 위한 간호제공 시 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두 가지 근원적 가치이다. 말기 환자 간호에 있어서 간호사는 간호중재 시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실무 수행 시 자주 윤리적인 문제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윤리적 갈등은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간호수행, 즉 체위변경, 식사보조, 목욕 등과 같은 업무 중에도 자주 유발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이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를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수행한 도덕적 선택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없거나, 간호수행 시 강조하는 가치가 무시되었을 때”, 혹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그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 할 때, 또한 여러 가지 제약 즉, 개인의 신념과 가치에 위배되는 방식의 행위를 요구 당할 때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문제를 명명하고 명료화 하는 것은 간호사의 중요한 간호 역할 중 하나에 속한다. 간호사는 항상 “이 환자와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 환자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문은 간호사가 도덕적 용기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문제 상황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여 필요한 것을 말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들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윤리 이론과 지식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인간의 성품이나 덕이 기반이 되고, 한 인격으로서 인간존중의 도덕적 의무를 준수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임상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 숙고의 반영과 지속적인 대화에 기초하여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과 환자와 존중의 관계가 기본 지침이 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또한 일련의 요구된 윤리적 자질 이상의 것을 소유해야만 한다. 겸손함과 민감하고 정교한 기지는 아픈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요구에 앞서 생각하며, 무엇을 반드시 말해줘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은가를 구별하게 해 주는 분별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